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 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교	기간	18.01.21~18.02.10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세인 마리 자체가 작은 도시라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대학도 작은 대학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학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이벤트 같은 것을 열면 관심 있게 다가와 말도 많이 걸어주십니다. K-POP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분반은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 난 후, Intermediate과 Advanced로 나뉩니다. 저는 Advanced 수업을 들었는데 문법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제도 매주 내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안내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내주셔도 10분이면 끝날 쉬운 과제들입니다. 선생님들 자체가 친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좋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키바지 꼭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눈에서 하는 활동이 많은데 한국보다 추운 캐나다에서 눈에 젖은 바지 입고 있으면 그대로 동사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추위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히트택이랑 장갑, 핫팩도 가져오

	시면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매우 좋습니다. 눈도 자주 치워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무릎까지는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집까지 매일 걸어서 갔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엄청 늦은 밤에는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안전한 것 같습니다. 밤에 9시 넘어서 걸어서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수세인 마리 사람들 자체가 친절해서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 차에 2번 타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홈스테이에서 지냈습니다. 여자 분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집처럼 편하게 TV도 보고 그랬습니다. 냉장고도 막 꺼내먹었어요.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전 홈스테이에서 요리해주시는 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밥 먹으며 대화를 하며 친해질 수 있고, 매일같이 밖에서 먹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집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학교를 가는데 터미널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저는 풍경이 예쁘기도 하고 운동도 할 겸 터미널까지는 걸어 다녔습니다. 터미널에서 대학교도 15분 거리입니다. 터미널에 15분과 45분마다 버스가 옵니다. 배차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처음에 버스가 어려울 수 있는데 홈스테이 분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저는 너무 못 알아들어서 친히 지도를 그려주셨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및 쇼핑	760000	(나름 아낌)
합계	76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S-FLEC 선생님이 수세인 마리 엄청 추울 것이라고 겁을 주셔서 핫팩을 많이 사서 갔었는데 짐만 되었습니다. 나중엔 추위에 익숙해 저서 핫팩이 잘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적당히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잘 안썼던 것 같아요.

홈스테이 분들과 계실 때는 영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같은 홈스테이에 2명의 학생이 배치될 때가 있는데 홈스테이 가족 앞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의 앞좌석은 노약자석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타시면 비켜주셔야 합니다.

학교에 일본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일본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어를 모른다고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시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원래부터 영어권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드라마도 정말 미친 듯이 보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 생활에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매일 TV에서만 보던 것들이 일상생활이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돌아가기 싫어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원래 친절하고 착한 이미지로 미디어에서 종종 비추어 저서 실재론 어떨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정말 모두 친절하고 착하십니다. 이민자의 나라여서 그런지 차별도 별로 없고 영어 못해도 천천히 다시 물어봐주십니다. 향후에는 IELTS 시험을 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학생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외 취업하고 다시 가고 싶네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하키 보러간날	Bon Soo 축제날
	
K-Lunch 학을 접는 줄리아	알파카 먹이 주는 중
	
고슴도치 팔찌 만드는 중	홈스테이 집